

I N T O T H E N E W F U T U R E

밀라노에서 보내온 편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김남수 지음

연변인민출판사

I N T O T H E N E W F U T U R E

밀라노에서 보내온 편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김남수 지음

연변인민출판사

밀라노에서 보내온 편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연변인민출판사

责任编辑: 金昌锡

责任校对: 金美花

技术设计: 郑善淑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迎接新的未来: 朝鲜文 / (韩)金南洙著. —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 9

ISBN 978-7-5449-0513-8

I. 迎… II. 金… III. 散文-作品集-韩国-现代-朝鲜语 IV. I312.665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175237号

迎接新的未来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上海佰诺印刷包装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787×960 1/16 印张: 15.25 字数: 20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513-8 (民文)

版次: 2009年10月第1版

2009年10月第1次印刷

定价: 48.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밀라노에서 보내온 편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들어가는 말

밀라노의 가을 중에도 청명하고 아름다운 날씨가.

오늘은 칼럼을 묶어 책으로 내어보겠노라는 중국 연변인민출판사 상해 지사의 요청을 1년여 머뭇거린 후, 허락을 하면서 지난 4년간의 상해와의 인연을 되돌아본다.

세계는 바야흐로 대 변화의 격동 속에 풍파 속의 조각배처럼 위태위태하게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다.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에 이은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지급 신청, 널뛰는 주식과 함께 온 세계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의 환율은 바닥을 기고 있고 상해 증시도 2000을 밑도는 최악을 맞이하고 있다.

연일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이 세상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이 세계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판국에 개인은 어떻게 이 어려운 파도를 넘어야 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선 무얼 먼저 해결해야 하며 인생을 위해 준비할 것



은 과연 무엇일까?

누구나 이 불안한 시기에 생각하는 문제일 것이다.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한 대답 하나 들려주지 않는다.

그간에 상해의 한 매체를 통해 격주에 한편씩 칼럼을 기고해 왔다. 어느덧 80여 편이 넘는 칼럼이 모아졌고 이제 그것을 추려서 책으로 내어 놓는다.

주로 21세기를 향한 한민족 실업인들과 교민들에게 준비 있는 미래를 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내용들이다. 변화는 어떻게 우리에게 닥쳐오며 어떤 자세여야 넉넉하게 그 파도를 넘어갈지 또 뜬금없이 나타난 지식경영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자기경영과 기업경영 등에 대한 이해들을 소개하고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부족한 사람이 아직도 연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줄필이 나마 읽고 감동을 전해오는 독자들이 있어 용기 내어 책으로 펴낸다.

매사는 때가 있는 법, 이제 이 책을 읽어 21세기 변화에 대비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주저할 바 없이 내어놓고 평판 같은 것은 독자들의 몫으로 돌리고자 한다.

이 책이 나오기 까지 연변인민출판사 상해지사 김창석 지사장님의 집념어린 권고가 1등공신임을 전하며 독자들의 가감 없는 비평 또한 기대해 마지 않는다.

밀라노 사무실에서

2008년 9월 29일

멀리보에서 보내온 편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차 례

[제1편]
지식경영]

지식으로 살아가는 세상	3
“강점으로 승부하라”	6
미래사회 사업 키워드 세 가지	
- 전문성, 개별성, 복제성	11
자승의 원리를 내 사업에 적용하자	16
지식경영 속에 감성이 필요하다	19
지식경영으로 얻는 일석 삼조	21
피터 드러커와 지식경영	24
지식의 안경으로 시장을 보자	30
워터루에서 지식경영을 생각한다	34
장수기업의 주인이 되려면	37
전략적 이동과 가치혁신을 통한 경영	40
혁신 경영 이야기	43
우수한 민족으로 자리매김하는 내일을 바라며	46
지식경영과 건강관리	53



미래 예측으로 넘쳐난 한해	56
창의력으로 승부를 걸자	59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62
새로운 시대 슈퍼맨이 되는 길	66
선택과 집중	69
구글 신화를 보며	72
제퍼슨기념관의 비둘기 교훈	75



변화를 주도하자	81
변화, 그리고 우리	84
1인당 국민소득 35,000 달러 시대를 향하며	88
지식으로 알아보는 변화	91
홈런 사업가는 특별한 무엇이 있다	94
바르게 하는 것의 의미	98
표준 - 충성 없는 전쟁	101
목표를 정한 인생	105
FTA 협상타결을 축하하면서	109
십년 후 나의 삶	112
우리시대의 영웅	117
위기 이후와 중국	121
스마트 인그리드	124

꿈은 이루어진다	131
스티비 원더는 맹인 흑인 록 가수다	135
실패로부터 새로워지는 인생	139
왕용칭의 쌀가게	142
재미로 승부하는 경영	146
멘토와 함께 하는 성공적인 미래	150
토리노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153
차범근이 생각나는 독일 월드컵	156
한 사람의 꿈	159
21세기 경영과 유목민 칭기스칸의 교훈	162
신호범 의원의 인생경영	165
주는 자가 승리한다	167
네덜란드 이야기	171
산업혁명과 세기적인 삶	176
단순한 원칙	183
술개의 꿈	187
“레만호수가 어디야?”	190

[멀리보에서 보내온 편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제4편]

위대한 경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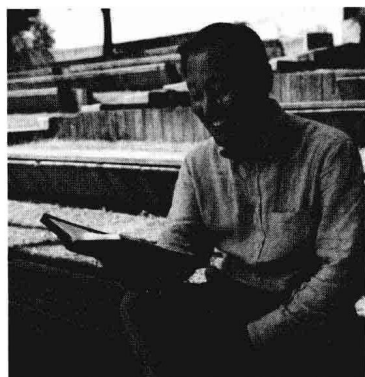
오바마의 때	195
블루오션(blue ocean)전략으로 경영하라	199
세종대왕과 이견희	203
창조경영의 실제와 두바이	210
컨셉(Concept)으로 승부하자	215
히딩크와 속도경영	218
21세기를 살다간 유목민족의 이야기	222
힐러리와 만델라	226
우리시대의 영웅	229
선거의 계절	232

제 1 편 지식경영

[밀라노에서 보내온 편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 지식으로 살아가는 세상
- “강점으로 승부하라”
- 미래사회 사업 키워드 세 가지-전문성, 개별성, 복제성
- 자승의 원리를 내 사업에 적용하자
- 지식경영 속에 감성이 필요하다
- 지식경영으로 얻는 일석 삼조
- 피터 드러커나 지식경영
- 지식의 안경으로 시장을 보자
- 워터루에서 지식경영을 생각한다.
- 장수기업의 주인이 되려면
- 전략적 이동과 가치혁신을 통한 경영
- 혁신 경영 이야기
- 우수한 민족으로 자리매김하는 내일을 바라며
- 지식경영과 건강관리
- 미래 예측으로 넘쳐난 한해
- 창의력으로 승부를 걸자
-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 새로운 시대 슈퍼맨이 되는 길
- 선택과 집중
- 구글 신화를 보며
- 제퍼슨기념관의 비둘기 교환

지식으로 살아가는 세상



21세기를 살아가는 지혜를 말하라고 한다면 지식을 쌓으라고 말하고 싶다.

지식을 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해주고 싶다.

지식을 얻으면 부부 싸움이 그친다.

지식을 얻으면 나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지식을 얻으면 내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

지식을 얻으면 내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이 풍요로워 질 수 있다.

나아가 내가 사는 사회 또는 나라가 부유해 질 수도 있으리라.

“21세기는 지식의 양이 부를 결정한다.”고 피터드러커가 일찍이 설파했다.

농경사회에서는 땅을 가진 자들이 부를 누렸고 산업사회에서는 노동과 자본과 기술이 부의 원천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지식 하나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과거의 토지와 노동력과 자본



과 기술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큰 풍요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

무일푼의 19세 청년이 차고 안에서 똑딱이던 학생 신분으로 마이크로 소프트를 일으키더니 10년여 만에 세상을 놀라게 하고 이제까지 세계 제일부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가 지니고 있었던 새 세상에 대한 지식 덕분이다. 무명의 제프 베조스가 지식 하나로 아마존닷컴을 세운지 불과 수년이 지나지 않아 수십억 불의 회사로 만들어 냈다.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도 같은 일을 해낸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런 사람들 같이 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일까?

이미 기회는 지나간 것일까.

아니다 .

기회는 이제부터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 아마도 더 빨리 더 큰 부자가 되는 기록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또한 그 기록은 계속해서 깨어질 것이다. 많은 미래학자들의 한결 같은 예언이다.

이러한 지식에 대해 편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 즉 지식이 박사학위와 같은 학식과 혼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지식은 결코 학식이 아니다. 많은 책을 읽고 알기는 도사 같은데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 약하거나 느리거나 매사에 게으른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 경우 학식은 거기에서 머물고 지식으로 옮겨가지 못하며 열매를 얻지 못한다.

피터 드러커는 말한다. “지식을 가지고 경영을 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산성 향상이 무엇인지 혁신이 무엇인지는 칼럼에서 설명이 되었으니 이번에는 방향을 전환해 보기로 한다.

지식으로 가정을 다스리면 온 식구가 다정하고 행복해지고 지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면 좋은 졸업생을 배출할 뿐 아니라 학창생활을 즐기는 많은 학생을 가지게 되고 존경받고 행복한 선생님을 가지며 지식으로 병원을 운영하면 많은 병자를 고쳐낼 뿐 아니라 환자를 기쁘게 하고 의사들을 만족하게 하면서도 근무자 모두에게 풍요와 안정 그리고 평안을 주게 되리라.

학식이 아닌 지식으로 나와 가정 그리고 소속 단체와 사회 나아가 나라를 바꾸는 놀라운 지식경영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해 본다.

2005-02-15



“강점으로 승부하라”

세계의 원자재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역사에서 본 적이 없는 초대형 시장을 가진 나라... 20세기와 21세기를 한 몸매 지닌 조금은 신비스러운 나라... 세계화 시대를 잘도 헤쳐 가는 일당 체제의 나라... 어떻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다양성과 변화 속에 있는 것이 중국의 오늘이다. 초고속 열차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해가는 오늘의 세상 속에서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몸체의 중심은 과거 산업사회의 틀에 의존하는, 그러면서도 초고속 21세기형 어떤 비즈니스에서 세상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겠다는 아이러니한 나라, 중국을 바라보면서 문득 내가 있는 곳 이태리에서 찾은 중국 전략을 떠올려 본다.

내가 살고 있는 이태리는 꿈과 낭만이 있는 나라이다. 예술의 나라요, 명품의 산실이며 감성의 발달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소득마저 누리는 부러운 나라다. 상해 포서(浦西) 중심가의 “플라자 66”이나



“리츠 칼튼 호텔”에 가서 유명 브랜드들을 살펴보자. Gucci, Bulgari, Giogio, Armani, Giani Versace, Valentino, Salvatore Ferragamo 등등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세계 명품들이 이태리 산임을 알 수 있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풍요롭고 부유하게 만들었을까? 나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감성과 그 감성을 잘 발전시켜온 그들의 지혜에 있다고 말하고 싶다.

“강점으로 승부하라” 피터 드러커의 『지식경영』요체 중의 한 부분이다. 이태리에 산지 20년이 넘는 내가 아직도 짜증을 내는 일 중의 하나는 “왜 길을 똑바로 내지 못하고 이렇게 빙빙 돌릴까?”하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몇 바퀴를 돌아야 제대로 찾아갈 수 있고, 십자도로는 건널 수 없어 동네의 모든 교차로는 거의 로타리(회전식 교차로)로 다 바꾸어놓은 나라. 맛과 분위기와 서비스의 완벽함을 위하여 3시간 이상의 자기 연출이 기본이 되는 음식문화의 극치를 연출하는 사람들의 나라, 옷이 예쁘고 색깔이 맞고 하는 등의 이야기들을 생각 없이 느낌으로 말하고 말을 받는 일반국민이 넘치는 나라, 로마 천 년의 역사적 유물과 유적이 온 나라에 무진장하게 펼쳐져 있는 나라... 이것이 이태리라는 나라이다.

이 정도 표현으로는 아직 멀었다. 연애를 세계에서 가장 잘 하는 사람은 이태리인이다. 미술과 문학, 칸소네와 오페라로 공격해오면 그 감성의 극치에 무너지지 않는 청춘은 없다고 장담하는 이 이태리인들에게서 한 가지씩 털어내며 옹고 그림이나 진위를 가려내려는 태도는 소인배나 할 못한 짓임을 미리 알려둔다.

길고 긴 역사 속에서 그 옛날 율리어스 씨저나 키케로와 같은 불